

O-10

한의학에 나타난 인삼의 효능에 관한 통계적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김 성 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에서 인삼은 다용되는 한약재중 하나로, 기미(氣味)가 달면서도 약간 쓴맛이 있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대보원기(大補元氣), 고탈생진(固脫生津), 안신(安神)하는 본초학적 효능이 있어 노손허손(勞損虛損), 식소(食少), 권태(倦怠), 반위토식(反胃吐食), 대변활설(大便滑泄), 허해천촉(虛咳喘促), 자한폭탈(自汗暴脫), 경계(驚悸), 건망(健忘), 현훈두통(眩暈頭痛), 양위(陽萎), 요빈(尿頻), 소갈(消渴), 부녀붕루(婦女崩漏), 소아만경(小兒慢驚), 구허(久虛), 일체기혈진액부족증(一切氣血津液不足症) 등의 증상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자에 이르러서는 “고혈압, 당뇨병, 빈혈, 정신병, 양위, 혈전증 및 암” 등 각종 병증에 대하여 실험적, 임상적으로 일정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을 증기로 찐 고려홍삼을 전매품으로 취급하고 이의 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임상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인삼으로부터 다양한 saponin을 분리하고 이들의 효능을 분리하는 분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삼은 대표적인 한약재이므로 이미 수천년동안 이룩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된 본초서에 나타난 효능을 검색하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할 초보적 연구로 사료되어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을 비롯한 43종의 본초서에 나타난 인삼의 본초학적 효능을 중심으로 통계적 연구를 하였던 바, 인삼의 효능은 총 몇 32건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보오장(補五藏), 구복경신연년(久服輕身延年), 대보원기(大補元氣)” 효능은 자양강장효과 및 장수식품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안정신(安精神), 익지(益智), 정혼백(定魂魄), 치다몽(治多夢), 경계(驚悸), 불망(不忘)” 효능은 정신 신경의 안정효과를 제시하며, “치소갈(治消渴), 생진액(生津液)” 효능은 당뇨병에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치양위(治陽痿), 남여일체허증(男婦一切虛症), 노권내상(勞倦內傷)” 효능은 양기부족의 치료에 활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치곽란(治霍亂), 활설구리(滑瀉久利), 구얼(嘔噦)” 작용은 위

장질환에 대한 효과를 시사하고, “파견적(破堅積), 소담(消痰), 부과종유(婦科腫瘤), 소화도종유(消化道腫瘤)” 효능은 암등의 치료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명목(明目)” “치흉협역만(治胸脇逆滿)”등의 다양한 치료효과도 언급하고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들의 효능은 대부분 지금까지 밝혀진 실험적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바, 앞으로 한약을 이용한 연구는 먼저 문헌적 검색을 하고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법이라고 사려된다.

또한 인삼의 연구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던 바 인삼은 한약이므로 전통적인 분석적 연구와 더불어 1) 인삼과 다른약재를 배합했을때 약물간의 상승작용과 부작용을 제거하는 상쇄작용을 고려한 연구 2) 특정질환에 유효한 인삼을 배소한 처방 및 드링크제 등의 개발 3) 현재 한의원에서도 인삼이 다량 소비되고 있는데 특정병증에서 고려홍삼이 고려인삼보다 효과적이다는 실험 및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고려홍삼이 한의원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등이 병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